

한국신종교학회 교수 및 재야신종교연구자 '승리절' 제단 방문

승리제단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제38회 승리절을 맞이하여 한국신종교학회(이하 동학회로 칭함) 회원 및 재야 신종교연구자들 11명이 승리제단 본부를 방문하였다. 동학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비교종교문화담사는 승리제단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한강현(동학회 감사) 선생이 학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안내를 하였고 이들 11명은 승리절 경축 예배에 모두 참석하였고, 이 중 이경우 한국새종교연구원장을 포함하여 7명은 예배 후 세식 교육실에서 승리제단 소개 프로그램까지 참관하는 등 승리제단에 대한 높은 탐구심을 보여주어 승리제단 관계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경우 한국새종교연구원장 등 7명의 학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승리절: 인류의 광복절

승리절은 조희성 구세주께서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를 입은 날로서 승리제단 최대 명절이다. 사람은 누구나 죄(마귀)로 말미암아 인간의 탈을 벗지 못한 채 죽음(마귀)의 권세 아래 평생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불쌍한 존재들이지만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존재가 출현한 날이므로 승리절은 죽음(마귀)의 지배 아래서 해방된 인류의 광복절이라고 칭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조희성 구세주께서 처음으로 죽지 않는 영생체로 변화되었으므로 이를 따라 모든 인류가 영생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인류에게 진정한 영생의 희망을 주는 위대한 희망의 날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구세주께서 육신을 가지고 당신의 계획을 다 마무리하고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를 해도 될 때가 되어 보광하신 것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분신으로 역사하시는 구세주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구세주께서 현재도 살아 계시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승리절에 승리제단을 방문한 신종교 연구자들은 모두 똑같이 조희성 구세주가 영생을 한다면 왜 죽었는가를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안병천 강사가 승리제단 소개 말씀을 마치자마자 소윤하(민족정기 선양 위원회 위원장) 선생은 "영생을 주장한 분이 왜 돌아가셨나?"라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박태선 승사(승리신문 기자)는 "조희성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제단에서는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않고 보광(普光)이라고 말한다"고 먼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후 박 승사가 경험한 내용을 간증하였다. "보광 후 영안실에 모셔진 시신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얼굴이 너무나 작았고 가슴에 북두칠성의 점이 없고 정강이에 유리칼날에 박힌 흉터가 없는 것을 보아 조희성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분신(分身)과 변신능력을 갖춘 구세주는 달마대사가 짚신 한 쪽으로 자신의 죽음을 가장한 것처럼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구세주는 지금도 살아계

신다. 영육일체론에 입각한 구세주의 영생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여 구세주의 경지에 이른 자는 보광하신 주님을 본다."라고 말했다.

이경원(동학회 부회장 및 대전대학교 교수) 교수는 "승리제단이 소사라는 곳에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안병천 승사는 격양 유록의 천봉지락소사립(天崩地裂素砂立) 및 시종간야소사지(始終艮野素砂地)라는 예언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격언, 그리고 역곡승지(驛谷勝地)라고 예언된 울곡비기(粟谷秘機)를 들어서 소사에서 구세주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재현(동학회 부회장 및 금강대도종리학회 회장) 선생은 "예배시간에 여러 명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은혜 받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쉽다. 감사님의 체험을 얘기해 달라"고 주문하였고, 이에 안 승사는 체험이 당연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로이슬을 받아서 죽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모든 욕망을 초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오직 감로이슬로써만 가능하며, 썩을 양식을 먹지 않고 감로이슬만 먹고 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체험은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우 회장은 박멸소탕 기도를 8번 하는 이유가 혹시 미륵불이 과거칠불(비바시불(毘婆尸佛 Vipasyin) · 시기불(尸棄佛 Sikhin) · 비사부불(毘舍浮佛 Visvabhu) · 구류손불(拘留孫佛 Krakucchanda) ·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Kanakamuni) · 가섭불(迦葉佛 askyapa) ·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Sakyamuni)) 이후 8번째로 나오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다. 박멸소탕 기도를 8번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냐 미륵불께서 하는 일은 모두 유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고 안 승사는 답했다.

열면 질문과 답변으로 마무리

한강현 동학회 감사는 "승리제단은 문이 항상 열려 있다. 지금까지 승리제단에 대하여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던 것은 신종교에 대한 박해와 권력에 편승한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오셔서 그 누구와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승리제단은 여러분들의 연구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학자들의 연구를 독려했다.

열면 분위기로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행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우혜란(동학회 부회장), 한종섭(백제문화연구원 회장), 김희연(한국영가무도정호회 회장), 김길만(산고사연구자, 한문화연구원장), 김영숙(국제신문문화회 회장), 해명성님 이상 11명이다.

한국신종교연구자들과 재야 비교종교문화 연구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를 고대한다.*

히 상상을 불허합니다.

마음을 실어 지극 정성으로 멸마경, 찬송, 웃음 수행을 행하여 보십시오.

웃음 수행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니 웃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웃음을 마음껏 웃고, 말씀을 듣는 시간과 같은 경우에는 입꼬리 만이라도 올리고 말씀을 경청하면 우리의 수행의 정도는 나날이 심화의 길을 걸어 100% 하나님의 안에서 생활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닦아봅시다.* **윤금옥 승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44)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전제로 세상을 사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 소망이 클수록 현실 생활이 풍요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영생이 믿어지지 않거든 철학적으로 영생의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사람이라도 되어 보자 하는 것이다.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

면 먼저 내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 공포가 엄습할 수 없으니 그 마음이 태평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되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처음부터 영생을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피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몸이 변하면서 저절로 영생의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밝고 얼굴에 서는 빛이 나는 것이다*

사건 다시보기

천만 명 서명운동으로 전도 활성화시켜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조희성 구세주와 본제단에 가해진 현금사기건의 부당함을 살펴보고 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다시 간략하게 사건을 정리해보겠다.

옥사(獄死)를 노렸던 이경재 검사

조희성 구세주는 현금사기죄로 무려 2년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형이 작다고 생각한 검찰은 오 모와 최 모를 비롯한 전(前) 영생교 교인들 16명을 코치하여 재차 현금사기죄로 고소하게 하였고, 기소 후 15년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이렇게 논고하였다. "전도관의 경우 영생을 주장했던 박태선 장로의 징역기간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전도관을 부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피고 조희성의 경우 장기 사회와 격리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법정최고형(15년)으로 처벌해 영생교가 회생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꾀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구세주를 장기간 교도소에 복역하게 함으로써 옥사(獄死)시키려는 무서운 음모로 볼 수밖에 없는 논고였다. 종교단체에서 받은 현금이 사기가 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일부러 배고자들을 코치하여 재차 현금사기죄로 기소하며 15년 구형을 한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고소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녹취록을 인정하지 않는 등 심리미진의 점과 사기죄의 법리를 왜곡했다는 변호사들의 항변을 듣지도 않고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1심판결에서는 징역 7년을, 2심판결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4년을 확정하였다는 것은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록될 판결

이었다.

따라서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이 판결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소원까지 하면서 불복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구세주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구세주께서는 각계에 탄원을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석방될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었다.

한편 당시 정계는 대법관 출신의 대쪽 판사 이회창씨가 15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 가운데 느닷없이 구세주는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안양교도소에서 접견할 때 종종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신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투표일이 다가오자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한 후 마지막이라는 최후의 결전의 심정으로 출마한 김대중은 매우 초조한 심정으로 투표일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때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승리제단 간부들을 김대중 대통령 자택으로 보내 선거일 전날 초조한 심정으로 투표를 기다리는 김대중에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니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투표도 하기 전에 전해주었던 것이다. 그 축하의 말씀을 듣고 김대중은 조희성 구세주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몇 번이고 감사속 회장에게 말했던 것이다.

한달 반 만에 백만 명 서명

김대중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대사에서 구세주를 사면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믿을 구석이 없다고 교인들에게 말했다고 판단하셨던지 교인들에게 구세주 무죄 1000만명 서명을 지시하였고, 교인들은 1998년 6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2면에서 계속)

정성 다한 수행 감동의 삶으로 이어져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멸마경의 기도를 할 때 지극정성으로 행하고 있다 시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지극정성으로 행한다는 말은 마음을 실어 사용하여 행한다는 말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마음을 써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삶의 열정이 생기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생활이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많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많은고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사는 경우가 많

다고 합니다. 삶이 팍팍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지극정성으로 찬송을 해보십시오. 저음의 소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깨달음의 길에 한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고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파장을 시타파로 만들어주어 명상의 효과와 소원을 성취시키는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사회에 악과 폐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이는 불량아들을 불러 모아 악기를

가르치면 자신의 부모들을 저주하고 사회를 향해 대항하던 그 불량아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사회에 훌륭한 일꾼이 될 청년으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음악의 파장, 주파수가 마음을 변화시킨 결과물인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마음의 주파수에 따른 음악을 만들어 심신의 치료나 능력개발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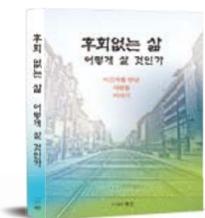
구세주님은 멸마경의 기도를 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 강건한 체질이 되고 마귀가 일으키는 자연재해까지도 멸마경으로 물리친다고 하니 그 위력은 가

새책이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해인

'삶'이라는 苦海^{고해} 쉽게 건너가는 이야기

이긴자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교보 알라딘에서 판매 중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례를 드립니다. 분량이 적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든 그 의미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4지역 2개월 연속 1등

개인 1등 이영애 권사



4지역 이영애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에서는 10월 9일 회의실에서 화요일 정기 구역장 회의를 열고 9월 성적에 대한 시상하였다.

-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3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구역 1등: 37구역(구역장: 이영애) 2등: 51구역(구역장: 김주호) 3등: 44구역(구역장: 이수영)
- *개인 1등: 이영애 권사 2등: 김주호 승사 3등: 이수영 권사*